

【국제 심포지움】

일본의 한국연구, 한국의 일본연구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 한일 1965년 체제를 「재단련」 하기 위해

취지

일본의 한국연구, 한국의 일본연구는 객관적으로 상대국, 상호관계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가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려해야 한다'와 같은 규범적 논의와는 별개의 차원에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당연히 있음직하며, 다른 한편으로,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완전한 가치 중립성은 있을 수 없으며, 적어도 상호관계에 관해서는 무언가 규범적 지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다.

지역연구는 그 지역에 대한 것이나 그 지역과 자국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며,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한일관계의 「진전, 개선」에 공헌해왔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보면, 상대를 아는 것으로 인해 반대로 상대에게 「실망」하고, 상호이해를 포기한다는 경우도 있을지 모른다.

연구자가 직접 정치, 외교를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어렵지만, 이러한 연구라는 지적 작업이 현실의 한일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가, 이에 대해서는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한국연구를 짊어진 기관으로서, 현대한국연구센터는 5년간 다양한 일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이 5년의 기간 중, 처음 2년 정도는 한류 붐의 혼적도 있어 그리 관계는 나쁘지 않았으나, 2012년 이후는 어떤 의미로는 참담한 상황이었다. 과거 5년간을 일단락하며, 도대체 이러한 연구라는 지적 작업이 현실의 상호이해나 관계개선과 어떠한 관계성을 가져왔는지, 혹은 가져야 하는 것인지, 더욱이, 그 결과로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해야하는지 등을 연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자 한다.

일시:2015년 3월 14일 (토) 10시~17시30분

장소:도쿄대학교 혼고캠퍼스 후쿠타케홀

<http://fukutake.iii.u-tokyo.ac.jp/access/index.html>

참가비 무료,

★ **【신청 등록 필요】**

사전 등록/ 문의: ccks@iii.u-tokyo.ac.jp

메일 제목: O314 참가

메일 본문:

- 1) 성함
- 2) 소속
- 3) 연락처 (메일주소)

언어:한일동시통역

주최:도쿄대학교대학원 정보학원 현대한국연구센터

후원: Korea Foundation

개회식(9시 50분~10시)

개회사 기미야 다다시(도쿄대학교,현대한국연구센터 센터장)

축사 요시미 순야(도쿄대학교,부학장)

축사 유흥수(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축사 윤금진(한국국제교류재단,교류협력이사)

I 제 1세션 (10시~12시) 일본의 한국연구를 되묻는다.

사회:기미야 다다시(도쿄대학교)

보고

일본학회에서의 한국연구에 대해서:기무라 칸(고베대학교)

일본대학에 있어서의 한국연구교육에 대해서:기미야 다다시(도쿄대학교)

토론

한국의 한국연구자의 입장에서: 김원(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의 일본연구자의 입장에서: 정재정(서울시립대학교)

중식 12시~13시

II 제 2세션 (13시~15시) 한국의 일본연구를 되묻는다

사회: 도노무라 마사루(도쿄대학교)

보고

일본연구에 대해서 한국현대일본학회로부터: 진창수(세종연구소)

일본연구에 대해서 한국일어일문학회로부터: 최재철(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

일본의 일본연구자의 입장에서: 미타니 히로시(도쿄대학교)

일본의 한국연구자의 입장에서: 미쓰이 다카시(도쿄대학교)

III 제 3세션 (15시 20분~17시 30분) 라운드 테이블

사회: 기미야 다다시

참가자 전원 (9인)

일본의 한국연구, 한국의 일본연구는 한일관계에 어떠한 자세로 임해왔는가. 어떠한 의미로 공헌해 왔는가. 혹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혹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한일관계의 역사에서 본 현재 : 왜, 지금, 한일관계인가?